

저타르 담배 등이 흡연 행태 및 금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n effects of low-yield cigarettes on smoking and quitting behavi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저 타르 담배 등 건강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줄 것으로 흡연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담배가 시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강도 담배가 흡연자의 흡연 및 금연 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흡연자의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흡연자들이 저강도 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강도 담배를 더 깊이 혹은 더 많이 흡입하는 등 흡연자들의 보상 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저강도 담배 등은 일반 담배에 비하여 금연하기 어렵고 소비량이 줄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금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강도 담배의 소비자 오도성과 건강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타르 담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담배의 성분 및 제조에 대한 규제 및 저강도 담배의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최근 흡연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자 저 타르 및 저니코틴 담배, 각종 향료 및 첨가물을 포함시킨 담배, 얇은 두께의 슬림형 담배, 새롭게 개발된 필터를 사용한 담배 등 건강에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담배 제품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저 타르 담배 등은 소비자 인식과는 반대로 담배의 중독성을 증대시키고, 흡연시작을 용이하게 하며, 금연을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 담배 규제 정책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금

연의 전단계로서 저 타르 담배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의 금연 성공률은 보통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와 비교해 훨씬 낮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어 금연을 권고 받은 사람들이 금연의 대체 수단으로 저 타르 담배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담배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각종 향료와 첨가물은 담배 연기의 불쾌함을 감추고 담배를 보다 입맛에 맞게 함으로써 더 많은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게끔 하여 담배에 보다 쉽게 중독되게 한다. 이러한 첨가물과 향료는 청소년 등 담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다 담배를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 및 10조는 니코틴과 타르 등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첨가물과 향료 등 담배 제조 시에 포함되는 물질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WHO는 현재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ISO 측정 방식에 따른 타르와 니코틴 측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동 측정방식의 결함을 보완하여 흡연의 건강상 위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저 타르 담배 등에 대한 수요가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이러한 담배의 오도성과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 저 타르 담배 등에 대한 오도성과 건강 위해성을 막고 담배 성분 및 제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령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저타르 담배 등이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오도시키고 국가 금연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상, 저 타르 담배 등의 오도성과 건강 위해성을 분석하여 담배 성분과 제조 형태를 엄격하게 규제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저타르 담배 등이 가져다주는 흡연에 대한 오도된 인식과 이 오도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증대되는 건강상의 위해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① 저 타르 및 저 니코틴 담배, ② 각 종향료 및 첨가물을 포함한 담배, ③ 얇은 두께의 슬립형 담배, ④ 새로운 필터를 사용한 담배 네 종류의 담배 (이하 “저타르 담배 등”) 이라고 한다)가 흡연자로 하여금 담배가 건강에 덜 위해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지, 더 깊고/세계 담배를 빨게 만드는지, 더 많이 흡연하게 만드는지, 더 금연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조사는 200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들로 한정하였으며,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흡연자 분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할당 추출법(quota sampling)에 의해 수도권 거주자 500명을 추출하였다. 조사 방법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프로파일 카드와 설문지를 사용한 직접면접 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으로 저타르 담배 등의 건강 위해성과 직결된 보상 행동 여부를 알아보려고 “귀하가 저타르 담배 등을 피우실 때 일반 담배 보다 더 깊고/세계 빨게 됩니까?” “귀하가 저타르 담배 등을 피우실 때 (한번 필때) 일반 담배 보다 더 많이 피게 됩니까?”를 질문하였다. 또한 저 타르 담배 등에 대한 오도성을 파악하고자 “저 타르 담배 등이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한편, 저타르 담배와 관련한 금연 행동을 파악하고자 “저

타르 담배 등을 피면 일반 담배보다 금연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타르 담배 등을 피다 보면 일반 담배의 경우보다 담배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동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05) 자료에 바탕을 둔 할당추출법에 의해 조사대상자들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연령 및 성별 분포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성, 연령, 흡연기간, 흡연량, 교육 수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 500명 중 남성은 443명 (88.6%), 여성

은 57명 (11.4%)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흡연자 중 남성 비율 88.3%, 여성 비율 11.7%와 거의 흡사하다. 흡연자의 연령대는 30~40대가 52%로 전체 샘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도 30~40대 흡연자 비율이 51.8%로 나타나 두 수치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 혹은 대학원 재학/졸업인 고학력자가 전체 샘플의 6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는 전체 샘플의 26.8%에 해당

표 1. 조사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		합계
	성별	응답자 수	
성별	남	443명 (88.6%)	500명 (100%)
	여	57명 (11.4%)	
연령	19~29세	88명 (17.8%)	500명 (100%)
	30~39세	131명 (25.6%)	
	40~49세	129명 (26.2%)	
	50~59세	78명 (15.7%)	
	60세 이상	74명 (14.8%)	
학력	중졸이하	46명 (9.2%)	500명 (100%)
	고교졸업	134명 (26.8%)	
	대학교재학/졸업	275명 (55.0%)	
	대학원재학/졸업	39명 (7.8%)	
흡연기간	무응답	6명 (1.2%)	500명 (100%)
	1~9년	114명 (22.8%)	
	10~19년	142명 (28.4%)	
	20~29년	128명 (25.6%)	
	30~39년	67명 (13.4%)	
흡연량	40년 이상	49명 (9.8%)	500명 (100%)
	1~9개	80명 (16.0%)	
	10~19개	201명 (40.2%)	
	20~29개	167명 (33.4%)	
	30개 이상	52명 (10.4%)	

하고 있어, 샘플의 거의 대부분이 (89.6%)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기간은 1~9년, 10~19년, 20~29년이 각각 20%대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이상 흡연자는 1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 중 하루에 반갑 이상 한갑 이하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2%), 한갑 반 이상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4%)

3. 주요 조사 결과

1) 저타르 담배 등의 흡연 경험

동 조사의 흡연자 응답자 500명 중에서 저타르 담배 등을 피워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모두 316명으로 전체 샘플의 63.2%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저타르 담배 등의 흡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저타르 담배 등의 흡연 경험은 연령별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30~40대가 다른 연령대 보다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흡연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은 사람일 수록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기간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흡연 기간이 10~19년 사이의 사람

들이 저타르 담배에 대한 가장 높은 흡연 경험을 보였다. 흡연 시작 연령을 15세 전후로 가정한다면, 동 결과는 앞서 30~40대의 경험율이 높다고 나타난 연령별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흡연량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하루 흡연량이 반갑 이상 한갑 이하인 사람들이 저타르 담배 등의 흡연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흡연율이 높지만 저타르 담배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10년 이상 흡연을 해온 중장년층의 저타르 담배 흡연율이 높다는 사실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걱정하며 금연을 고려하고 있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저타르 담배에 대한 오도적인 인식이 보다 강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은 고학력층에서도 저타르 담배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못한 사람들이 많아 저타르 담배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모든 인구계층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2)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인식

(1) 전체적인 분석 결과

저타르 담배 등을 피워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316명을 대상으로 저타르 담배 등의 보상 행위 및 오도성 여부를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하여 더 세계 혹은 깊이 흡입하거나, 일반 담배 보다 더 많이 피운다고 응답한 흡연자가 그렇지 않은 흡연자 보다

표 2. 저타르 담배 등의 흡연 경험

		예	아니오	전체	$\chi^2(df)$
전체		316명 (63.2%)	184명 (36.8%)	500명 (100%)	
성별	남	283명 (63.9%)	160명 (36.1%)	443명 (100%)	0.779(1), P=0.378
	여	33명 (57.9%)	24명 (42.1%)	57명 (100%)	
연령	19~29세	52명 (59.1%)	36명 (40.9%)	88명 (100%)	38.700(4), P=0.000
	30~39세	100명 (76.3%)	31명 (23.7%)	131명 (100%)	
	40~49세	91명 (70.5%)	38명 (29.5%)	129명 (100%)	
	50~59세	47명 (60.3%)	31명 (39.7%)	78명 (100%)	
	60세 이상	26명 (35.1%)	48명 (64.9%)	74명 (100%)	
학력	중졸이하	15명 (32.6%)	31명 (67.4%)	46명 (100%)	30.359(4), P=0.000
	고교졸업	82명 (61.2%)	52명 (38.8%)	134명 (100%)	
	대학재/졸	184명 (66.9%)	91명 (33.1%)	275명 (100%)	
	대학원재/졸	33명 (84.6%)	6명 (15.4%)	39명 (100%)	
흡연기간	1~9년	74명 (64.9%)	40명 (35.1%)	114명 (100%)	26.530(4), P=0.000
	10~19년	101명 (71.1%)	41명 (28.9%)	142명 (100%)	
	20~29년	83명 (64.8%)	45명 (35.2%)	128명 (100%)	
	30~39년	43명 (64.2%)	24명 (35.8%)	67명 (100%)	
	40년 이상	15명 (30.6%)	34명 (69.4%)	49명 (100%)	
흡연량	1~9개	43명 (53.8%)	37명 (46.3%)	80명 (100%)	8.097(3), P=0.044
	10~19개	139명 (69.2%)	62명 (30.8%)	201명 (100%)	
	20~29개	106명 (63.5%)	61명 (36.5%)	167명 (100%)	
	30개 이상	28명 (53.8%)	24명 (46.25%)	52명 (100%)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보상 행위가 흡연자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저타르 담배 등이 일반 담배 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 중 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오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저타르 담배 등은 일반 담배 보다 금연하기 어렵고, 소비량도 줄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5.2%가 저타르 담배 등이 일반 담배보다 금

연하기 쉽다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88.3%가 저타르 담배 등을 피울 때 담배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흡연자들이 저타르 담배를 흡연한다 할지라도 담배를 더 세계 혹은 깊이 흡입하거나 더 많은량의 담배를 피우는 등 보상 행동을 함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저타르 담배의 "건강상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오히려 이러한 보상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일반 담배를

피우는 것 만큼 혹은 그 이상의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여 일반 담배 보다 더 해로운 피해를 입고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하는 전 단계로서 저타르 담배를 피우지만 본 조사 결과는 저타르 담배 흡연이 오히려 금연을 방해하고 금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현재 담배 회사들은 기계로 측정된 타르 및 니코틴 함량이 적은 신제품 담배 출시에 전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마케팅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담배 사업자들의 행태는 흡연자들의 저타르 담배 흡연을 종용하여 흡연자들이 더 금연하기 어렵게 만들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하고 있다. 저타르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사 대상 흡연자의 과반수가 넘는다는 사실은 저타르 담배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현재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

다. 하지만 저타르 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해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따라서 흡연의 피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함에 있어 일반 담배에 대한 해악 뿐만 아니라 저타르 담배의 위해성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흡연자 특성 및 흡연 행태에 따른 분석 결과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인식을 성별, 연령, 학력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들과 흡연기간 및 흡연량 등 흡연 행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및 흡연 행태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성이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 본 고의 지면상 흡연자 특성 및 흡연 행태에 따른 분석 결과 표는 실지 않았다¹⁾. 이러한 사실은 성별, 연령, 학력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물론 흡연량

과 흡연 기간과 같은 흡연 행태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해 오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앞서 저타르 담배의 흡연 경험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흡연자의 특성 및 흡연 행태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흡연에 대한 인식은 중장년층 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다. 저타르 담배에 대한 인식이 인구학적 특성 및 흡연 행태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타르 담배에 대한 오도성의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흡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저소득층 및 저학력집단 등 취약 집단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지만, 저타르 담배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각되는 각종 첨가물이 함유된 담배를 개발하고, 또한 신기술 공법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는 담배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배 회사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비단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한 것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성분 및 제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불충분한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 실로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성분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있어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방식을 따라 담배 성분을 측정하고 있는 현실이며, 담배 첨가물이나 필터 등 담배 제조 방식에 대한 규제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담배 회사의 오도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저타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국민들의 저타르 담배에 대한 오도적인 인식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비롯하여 담배 성분 및 제조에 대한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배 성분 측정 방식을 개선하고, 담배 성분 공개 및 담배 제조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 성분 및 제조와 관련한 담배 회사의 마케팅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저타르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연구 결과의 시사점

최근 들어 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담배 회사들은 이러한 인식을 무마시키고자 담배 성분 및 제조 방식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저타르·저니코틴 담배를 건강에 덜 위험한 제품으로 홍보하고,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

표 3. 저타르 담배등에 대한 인식

	예	아니오	전체
일반 담배보다 더 세게/깊이 흡입함	187명 (59.2%)	129명 (40.8%)	316명 (100%)
일반 담배 보다 더 많이 피우게 됨	183명 (57.9%)	133명 (42.1%)	316명 (100%)
일반 담배 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함	197명 (62.3%)	119명 (37.7%)	316명 (100%)
일반 담배 보다 금연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함 ²⁾	78명 (24.8%)	237명 (75.2%)	315명 (100%)
일반 담배 보다 담배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함	37명 (11.7%)	279명 (88.3%)	316명 (100%)

주: 설문지 문항 5 "저타르 등의 담배를 피면 일반 담배보다 금연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1명이 무응답하여 총 응답자는 315명으로 나타남.

1) 자세한 연구결과는 신윤정 외(2007) "담배의 성분 및 제조 형태에 따른 오도성과 위해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참고하기 바람.

담배 성분 및 제조 규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담배 성분의 정확한 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ISO 측정 방식 대신 보다 합리적으로 담배 성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아직 국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담배 제조 물질과 필터에 대해 엄격

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담배 포장지의 타르 및 니코틴 함유량 표기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저타르 담배 등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